

월요광장



노 경 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남미여행

이라고 그 답을 제시하였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은 동서로 긴 동일 위도지대로, 즉 유사한 기후대가 연결되어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문명에서 최초로 발생한 농업혁명이 동쪽으로 아시아(중국남부), 서쪽으로 이집트로 쉽게 전파되었다. 그리고 소나 말과 같은 큰 동물을 가축화하고 농경을 대규모화해 잉여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준 높은 문명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반면 수렵채집 수준의 유라시아인들이 빙하기에 베링해를 건너서 아메리카로 넘어갔다. 아메리카의 형상은 남북으로 긴 대륙이라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 농작물이 재배되더라도 상위나 하위 위도지역으로 전파되기 어려웠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대형동물로는 라마와 알파카가 있었는데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이었다. 결국 1500년대 초 스페인에 정복당할 때까지도 잉카제국 정도에만 농작물이 재배되었고 대부분 지역은 수렵채집을 하는 상황이었다.

전염병은 유럽인들이 남미를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럽에서 인간과 가축이 수천 년 동안 같이 살면서 가축의 질병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오면서 점차 면역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유럽인과 함께 전파된 전염병 특히 천연두, 홍역 등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던 원주민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결국 전염병은 전쟁과 함께 원주민 수를 급격하게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가 대규모로 강제 이주되었다.

또 한가지 의문은 '남미는 북미보다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가?'였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북미와 남미는 유럽 각지에서 침략자, 이주자들이 각각 정착해나갔다. 북아메리카에 도착한 이들은 대개 신교도인 칼뱅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갈구와 절대 가난 도피가 이주의 추동력이었다. 선행하면 천국 가느냐는 질문조차 신과의 거래시도로 보고 금지되었다. 구원에 관한 신의 뜻은 신의 영역으로 두고 인간은 극단적으로 성실·청빈하라는 강령이다. 모두의 성실·청빈한 생활을 위해 이들은 권력 분리의 제도를 만들고 민주주의 신념에 기초한 국기를 세운 것이다.

남미에 도착한 이들의 목적은 금은 보화의 획득이었다. 돈만 있으면 면죄부를 사서 천국도 얻을 수 있는 구교 국가 출신이었고 신분구분도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믿었다. 이들이 새 대륙에서 만든 사회는 인종·종교·신분의 기득권을 강고하게 하는 유기적 조직체에서 출발했고 공식보다는 비공식 관계가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도 같았다. 그게 결국 지금 빈부격차 극심한 중남미의 도시 풍경을 만들었다.

아르헨티나의 의사출신으로 쿠바혁명을 성공시키고 볼리비아에서 생을 마감한 체 게바라, 국가경제발전의 모델로서 1980년대 운동권 학생의 관심을 받았던 종속 이론, 가톨릭의 프란치스코교회의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경이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남미는 아직도 미지의 대륙이다. 그래서 버킷리스트의 여행지로 더욱 추천하고 싶다.

수필의 향기



박 용 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봄은 자전거 뒷바퀴에 묻어온다

고 게으른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병풍산 노루귀도 귀를 쫓긋 세웠을 성 싶고, 창평 읍내 담장 위로 매화나 목련도 곧 피겠지요.

봄은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자전거를 따라 아저랑이 가고, 들뜬은 초록으로 물듭니다. 봄은 내 자전거 뒷바퀴에 묻어 열심히 옵니다. 그러나 방에만 있을 수는 없지요.

잠시 자전거를 세웁니다. 그리고 봄맞이를 합니다. 작은 꽃 한 송이라도 봄은 들여다봄이고 만져봄이여 나뉘고 느끼봄이 진짜 봄입니다. 이왕 가만가만 들여다보고 가슴 깊이 새겨보고 꺼안아보고 다정다감 아무 만져보는 봄이 더 좋네요. 이번 선거도 이런 봄 같은 사람이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모두 훈훈한 봄이 되게 말입니다.

페달을 힘차게 밟습니다. 동그라미 두 개를 흔들며 휘휘 달립니다. 봄바람 부는데, 바람 좀 나면 어땀이 나니까. 내일은 더 좋아지고 따뜻해지겠지요. 겨우내 처진 타이어에 바람을 넣듯 당신의 가슴에 땀방울이 봄바람을 넣어보십시오. 가슴은 팽팽하게 부풀고, 힘이 불쑥 불쑥 솟아날 겁니다. 매일 봄을 만들어 보세요.

자전거를 탑니다. 자기 힘으로 갑니다. 자전거는 스스로 사는 나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온전히 저는 내가 됩니다. 그러나 힘이 나지요.

거칠 것 없는 들뜬은 무한대의 자유입니다. 언덕길에선 맘도 흘러고, 내리막에서는 그냥 제가 바람이 됩니다. Dust in the wind,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도시를 벗어난 자전거는 노래를 달고 날개를 단답니다.

다. 중간 중간 고살이나 눈두렁 산비탈에 자주 쉽니다. 어디든 봄이 있으면 멈춥니다. 할머니가 고살 담에 기대어 봄 햇살을 즐기고 있네요. 다가가 인사하고 눈 맞춤을 합니다. 노란 저고리 하얀 치마, 주름진 일가로 미소가 번지더니, 이내 그 웃음은 수술이 되고 꽃잎이 되어 노란 영춘화(迎春花)로 담에 피어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봄처럼 영춘(迎春)하고 꽃 이름처럼 회춘(回春)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쉬고, 꽃이 피어있으면 멈춰서 봄날 그 찰나, 그 향취를 헤아립니다. 산다는 것은 발견이고 깨달음입니다.

너무 앞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봄은 정말 자전거 뒷바퀴를 따라 느릿느릿 오지만 결코 뒤쳐져 오는 법은 없습니다. 봄이 부지런히 따라가는데 혹여 당신이 멀리 달아나지는 않는지요. 행복이 사랑이 따라올 수 있도록 어슬렁어슬렁, 사분사분 걸어보십시오.

겨울옷을 털어내고 힘도 날입니다. 까짓 그 힘든 날 없는 이가 있겠습니까. 저 나무도 꽃도 봄 한철을 위해 겨울을 견디어 냈으니, 우리 모두 낡은 것들을 털고 일어나야겠습니다.

새 뜻도 풀고,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살아보시지요. 나보다 너를 앞세우고, 너보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일입니다. 소(牛)가 외나무다리(一)를 건너는 것이 생(生)이었는데, 까짓 뭐가 두렵습니까. 이 깃 외나무다리쯤 자전거를 끌고라도 성큼성큼 봄처럼 건널 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새사람, 새봄은 오고 있습니다.

社說

선거구·후보 경선 지연에 전남 '깜깜이 선거'

4·10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 있지만 전남지역 선거판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텃밭인 민주당의 경선 후보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래 저래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이번 총선의 전남 지역 선거구는 의석수 10개는 변함이 없지만 동부권이 4석에서 5석으로 늘고, 중서부권은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든 안이다. 영암·무안·신안·해례대 인근 지역구로 묶이고 순천이 분리돼 갑과 을로 나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난 21일을 넘겨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합의안 도출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고 다음달 6일을 넘길 경우 2004년 17대 총선에서 기록한 D-38일 기록을 깨게 된다. 4년전 21대 총선에서도 D-39일에 가까스로 확정돼

깜깜이 선거를 치른 경향이 있다. 여기에 전남 입장에서 텃밭인 민주당 경선 후보들 윤곽이 늦어지면서 후보자간 비방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어제 민주당의 7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에 따라 이계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만 단수 추천으로 확정됐을뿐 나머지 9곳에선 28일 이후 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치 초년생인 예비후보는 선거 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이번처럼 선거구 개편이 예고된 지역구에선 후보나 유권자 모두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총선때마다 반복되는 지각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총선 전 6개월 안에 조기 확정하도록 강제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정당들도 가능하면 후보를 빨리 확정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처럼 텃밭인 특정 지역의 경선이 곧 본선이나 마찬가지로 경우 후보를 가능하면 조기에 확정해 유권자에게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줘야 할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기회 폭 넓혀야

국도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받은 전세사기 피해신청 720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총 556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는데 이 가운데 광주·전남은 351건(광주 153건, 전남 198건)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의 63.1%에 달한다. 피해 유형은 다세대 주택(33.9%)과 오피스텔(16.9%)이 가장 많고, 피해자는 20대(25.5%)와 30대(47.9%)가 대다수다.

광주 광산구 다가구주택에 세 들었던 30대 임차인 A씨는 집주인에게 1억2100만원의 보증금을 때렸지만 2년여가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세사기 피의자가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임차인 또한 집주인의 말에 속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한 탓이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도 국가와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조차 없게 됐다.

국토부는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나 임차권 등기를 갖출 것 등 구체적인 전세사기 피해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규정이 허술해 구제받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A씨의 경우처럼 임대인에게 속아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경우 구제대상이 될 수 없는 제도적 맹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이 남아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까다로운 구제책 벽에 막혀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한다. 이들은 어렵사리 돈을 모아 '지상의 방 한 칸'을 마련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구제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無等鼓

보물선으로 알려진 신안선은 1975년 8월 신안군 중도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도자기 6점이 도화선이 돼 무려 2만7000여점에 달하는 문화재가 출수됐다. 당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의 발굴 소식이 매일 언론에 소개될 정도였다. 신안선은 중국 푸젠성(福建省)에서 건조된 배로, 1323년 저장성 닙보(浙江省 寧波) 항을 거쳐 일본 하카타(博多)로 가다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당시 닙보와 하카타는 중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적 무역항이었다.

원대에 중국으로 건너간 게 다시 신안선에 실렸고 하카타로 가던 중 해난사고로 침몰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무게 28톤, 800만 개에 달하는 중국 동전과 태백 송장적인 죽간(竹簡) 300여점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신안 보물선

200톤급에 달하는 14세기 최대 무역선으로 조사된 신안선에는 도자기 2만여점, 동전 28톤, 금속 공예품 1000여점이 실렸다. 신안선에서는 고려청자가 7점 밖에 실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고려에는 들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배의 구조가 원양 항해에 적합한 V자 모양으로, 수심이 낮은데다 암초가 많고 물살이 빠른 우리나라 서남해안 항해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근거다. 굳이 소량의 고려청자를 싣기 위해 위험한 항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고려청자는 송·

관하는 등 현재도 명맥이 잇고 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 동안 진행된 신안선 발굴은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효시다. 신안선 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해 1994년 수중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유물전시관(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이 개관하기도 했다.

신안군이 신안선 발굴 해석이 있는 중도면 방축리에 신안해저유물 방문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 센터가 신안해저유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기 고



정 봉 남
전 순천기적도서관 관장

읽는 사람들

'2024 마포 각양각색 북페스티벌' 소식도 이곳을 통해 접했다. 새로운 시각으로 책을 만들어 독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출판창작자 부커(Booker)와 좋은 책과 동네책방을 찾아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씨커(Seeker)의 만남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 관련 예산이 사라지면서 위축된 출판문화 속에서도 꿈틀대는 저항정신 같아 반가웠다.

책 읽는 시민들은 스스로 자기 조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인간과 인간 사회를 떠받친다고 믿어졌던 원칙들이 무너질 때, 현실이 너무나 무도해서 그런 것들은 말짱 다 거짓말처럼 보일 때, 그때도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문명의 빠진 주춧돌을 매울 것이다..."(오수연 역자후기, '우리는 새벽까지 말이 서성이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에서)

누군가는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위기상황에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팔레스타인을 생각하는 밤'을 열고, 기적의도서관 20주년을 축하하며 '느낌표 선정도서 읽기모임'을 만들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 '일본 그림책 낭독모임'을 이끌고 있다.

'시 읽는 수요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림 마당에서는 햇빛만 쬐어도 행복해진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김중삼 시전집'을 읽어볼 엄두를 내지 않았을 것이고 팔레스타인 국민시인의 시를 읽는 경험이 가능했을까. 일본어로 된 영화 '괴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각본집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창작자의 질문에 독자는 끝없이 답해보려고 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과 혼돈에 대해 옆으로 옆으로 이야기를 뻗어간다.

'새벽을 여는 그림책' 모임에서는 함께 맞이한 아침의 숫자만큼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다. 출근 준비로 바쁜 육실의 물소리와 압력밥솥 뜨는 소리, 엄마를 찾는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도 화면 너머로 건너온다. 눈썹만 땀 스스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내 말이 꼬투리 잡히거나 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안에서 우정이 싹튼다. 우정은 사회적 관계를 돈독하게 감싸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부셔지지 않게 겨안을 줄 안다.

이토록 애를 써서 책모임을 이어가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불안과 경쟁에 허둥지둥 쫓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무례한 세상에 지고 싶지 않아서고, 먹고 사는 일과 돌봄노동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보잘것없는 일상에 아름다움 하나쯤 갖들기를 바라서다.

나이와 직업, 취향과 세계관은 물론 사는 곳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그게 가능한 일인가 묻는다면, 적어도 읽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읽는 사람은 답을 구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차리는 감각을 지녔다. 옹근리 말들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속수를 세우는 이들이다. 읽는 만큼 아프지만 아픈 만큼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인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5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64 | 체육부 220-0697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80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